

레게패션의 디자인 연구

김 수 련 · 염 혜 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대학원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Design of Reggae Fashion

Soo-Lyun Kim · Hea-Jung Yum*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distinctive feature and meaning of Reggae fashion and to establish a form of design on the basis of the Reggae style appeared in the 1990s.

For the study, we review a formative background and stream of the Reggae fashion. And then, characteristic of the Reggae fashion is clarified through analyzing street fashion and High-fash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Reggae fashion as a general term of the fashion style is connected to the Reggae music emerged from such socio-cultural changes as the tendency of the anti-fashion, the influence of the Afro-fashion, and the popularity of the Reggae music.

The Reggae fashion has been altered in terms of its style with the lapse of time- Rastafarian style, Raggamuffins and Bhangra style, Hip-hop Reggae style.

The Reggae fashion emerged in the 1990s falls into three styles: Afro-Reggae style, Feminine Reggae style, and Sporty Reggae style.

The above mentioned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design of Reggae fashion targets for a youth in one's early 20s following a tendency in the 1990s and the 2000s. The design concept represents Romantic Reggae.

Key Words : Reggae music, Reggae style, fashion, design

I. 서 론

21세기를 눈앞에 둔 최근의 패션 경향은 세기말
적 상황 하에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회귀적

성향으로 인한 아이템과 디테일의 장식성이 재인식
되면서 히피에서 파급된 에스닉의 일환으로 레게스
타일이 다시 주요 패션 트랜드로 대두되고 있다. 레
게음악은 자메이카의 흑인 음악으로 1960년대에 처

음으로 생성되어 1970년대부터 일반 대중음악의 주요 흐름으로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의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인 댄스 음악의 한 종류로 굽부상하였다.

그리고 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레게음악의 선풍이 일어나 청소년들의 자유 분방함과 당당함을 상징하는 욕구의 분출 통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랩과 힙합이 결합된 형태까지 새롭게 등장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독특한 아이템과 색상 등을 형성하는 레게패션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패션으로 청소년들의 욕구와 잠재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엄소희의 '청소년 하위문화에서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관한 연구'¹⁾, 주은희의 '힙합 패션에 관한 연구'²⁾ 등에서 청소년의 문화와 대중음악과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대중음악에 포함된 레게패션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레게패션의 디자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1990년 이후 나타난 레게스타일의 이미지를 근거로 하여 디자인을 창출, 제시하여 어폐령 디자인 실무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 레게패션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레게패션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레게패션의 특징을 국내, 외 스트리트 패션과 유명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레게음악과 패션을 내용으로 한 문헌과 논문을 자료로 하여 레게가 현대 사회에 주목을 받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스트리트 패션과 컬렉션에 나타난 레게패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0년부터 1999년 까지의 밀라노, 뉴욕, 파리 등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 분석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음반제작, 잡지광고 등을 분석하였다.

II. 레게패션³⁾의 형성 배경

1. 반유행(Anti-Fashion) 경향의 대두

반유행은 다양한 반문화(anti-culture) 집단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와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주류 유행에 저항하는 패션 또는 지배패션에 대항하는 복식 스타일을 총칭한다.⁴⁾ 20세기 전반까지는 유행의 획일화 현상이 계속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부터 노동자 계층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의 물질주의를 조롱하는 반유행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적, 인종적,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반유행이 점점 확산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주류 유행에 반유행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⁵⁾

그 중 흑인 반문화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이는 서인도 제도로부터 흑인 이주자들이 영국과 미국에 도착한 1940년대 말부터 비롯된 현상이다. 이 지역에서 흑인들은 기존 백인 위주의 사회에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권리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반문화를 이루게 되었다.⁶⁾ 이러한 흑인들의 반문화적 사고는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지배 스타일에 저항하는 반유행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과 의식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상징적 저항 수단으로 사용된 흑인 반문화는 엘리트의 지배적 문화로 상향 전파(trickle-up)되는 확산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도 기성문화와는 다른 하위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주체 세력이 되어왔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흑인이나 남미 아메리카 등의 소수 민족이나 하층 계급의 음악에 관심을 기울리곤 하였다. 따라서 흑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들의 음악이나 생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하위문화 연구가인 헬디지(Hebdige)는 대표적인 예로 레게음악을 들은바 있다.⁷⁾

2. 아프로 패션(Afro Fashion)의 영향

1961년 1월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 케네디(John F. Kennedy)는 불안에 떠는 미국인들에게 '횃불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넘겼다'라고 선언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인종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본권 조차 누리지 못한 반노예상태인 흑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⁸⁾

흑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수백 년간 고통을 달래 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들의 가사는 노예해방, 인종차별등을 표현한다. 이러한 흑인의 음악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백인 사회에서 인기를 얻으며 전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흑인음악의 대부 베리고디 주니어(Berygody Junior)가 모타운(Motown)이란 레코드 회사를 설립하여 다이아나 로스(Daeana Ros), 마이클 잭슨(Michael Jacskon) 등을 발굴하면서 부터이다.⁹⁾

이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아프리카 흑인에게 영감을 받은 아프로 패션이 등장하였다. 아프로 패션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 영감을 받아 1960년대 말에 등장한 특정의 복식, 액세서리, 헤어 스타일이다. 아프로 패션과 흑인에 대한 열풍은 청소년들의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리트패션으로서 당시 인기 가수들을 모방한 덤수록하고 자연스런 곱슬머리의 아프로헤어(afrohair)와 몸에 자연스럽게 드레이프시키는 헐렁한 실루엣의 다쉬끼(dashiki)등이 등장하였다.¹⁰⁾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아프로 패션은 흑인 음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블루스, 재즈, 소울 그리고 레게, 랩음악으로 변화되어 왔다.¹¹⁾ 그 중 레게음악은 인종적, 계급적 모순이 충첩된 흑인들의 고통과 경험에 반영된 음악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의 청소년 하위문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다.

3. 레게음악의 출현과 대중화

레게음악은 자메이카의 민속음악을 기원으로 한다. 1655년부터 300여 년간 영국의 지배하에 살았던 자메이카인들은 1930년대에 들어서 멘토(mento)¹²⁾라는 자신들의 고유의 음악장르를 만들었다. 이 멘토는 1940, 50년대에 들어 스카(ska)¹³⁾라는 음악으로 발전했다. 1966년에는 스카 리듬을 사용한 록 스테디(rock steady)라는 장르가 생겨났으며, 그후 그것은 레게로 변화되어 1968년부터 본격적인 레게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레게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자메이카 말이다.¹⁴⁾ 레게란 용어가 레코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9년 메이탈스(Maytals)의 'Do the reggae'라는 곡부터이다. 그 후 1972년부터 레게 리듬에 매력을 느낀 미국과 영국의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음악에 레게음악을 도입하게 되는데, 레게음악의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은 레게음악의 황제라 불리는 밥 말리(Bob Marley, 1945-1981)이다. 그는 길게 꼬 머리와 자연섬유의 옷을 입고 레게음악을 노래하였는데, 이는 당시 영국의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었다.¹⁵⁾

레게음악의 진정한 힘은 그 외형에 숨어있는 메시지에 있다. 거기에는 경쾌한 비트와는 다르게 자메이카 흑인들이 겪은 인종 차별과 자본주의의 억압적 정치에 대한 반발, 흑인 의식의 고취 등과 같은 무거운 메시지를 준다. 밥 말리는 대다수의 인구가 흑인이면서도 인구의 10%에 못미치는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자메이카의 실정을 고발하기 위해 레게음악을 '반역음악'이라 일컬어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다.¹⁶⁾

레게음악이 영미 팝계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1972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많은 음악가들이 레게음악의 비트를 사용한 레코드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조니 내쉬(Jonny Nash, 1940-)의 <I Can See Clearly> (1972), 그리고 스탠틀 싱어즈(the Staple Singer)의 <I'll Take You There>(1972) 등이 포함된다. 또한 1970년에 상영된 레게가수 지미 클리프(Jimmy Cliff)가 주연한 <The Harder They Come>이란 영화는 미국에 레게음악이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영화의 영향은 1978년에 밥 말리 앤 웨일러즈(Bob marley & The Wailers)¹⁷⁾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하여 레게음악을 보다 폭넓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⁸⁾ 그후 레게음악의 열풍은 한층 가속화되어 1980년대에는 휴루이스 앤 더 뉴스(Huruisse & The news), 유비포티(UB40), 빅 마운틴(Big Mountain)등의 가수들이 레게음악을 선보여 인기를 얻었다.

III. 레게패션의 계보

레게패션은 1960년대 이후 의복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에 특징을 보이며 현재까지 변화되어왔는데, 이는 다음의 3가지 스타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라스타파리안 스타일(Rastafarins Style)

라스타파리안 운동의 기원은 1930년대 자메이카에서 시작하여 당시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본명이 '라스타파리'인 하일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가 성서 예언의 수행으로 대관식을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¹⁹⁾ 흑인은 백인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지상의 천국이자 진정한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감으로서 구원을 얻고 백인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슬럼 가에 흘어져 사는 흑인에게 있어 고향 아프리카는 '약속의 땅'이자 흑인 시온(Zion)²⁰⁾의 꿈이었으며²¹⁾ 그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영감을 찾았다. 동시에 절제와 개인의 존엄 그리고 공업화와 인공적인 탐욕 속에서 현대 세계가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그들의 자연을 재발견하고 평화적으로 인내하는 생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믿음이 라스타파리안 스타일의 발전을 형성하는 모태가 되었다.

라스타파리안의 색은 적색, 황색, 녹색이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미래의 통일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국기 색을 활용한 것이다. 적색은 노예의 피를, 황색은 금의 의미로 아프리카의 부를, 녹색은 아프리카 고유의 색으로 푸른 초원을 의미한다.²²⁾ 즉 노예들이 바친 피를 바탕으로 부를 이루어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흑인들의 소원을 담고 있다. 라스타파리안은 이 색상들로 만든 옷과 배지, 모자를 착용하고 레게음악을 노래하고 듣는 것으로 집단 정체성을 표현했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여 원색의 천연섬유로 만든 의복이나 손으로 짠 벨트, 모자, 팔찌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였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드레드락스(dread-locks)²³⁾ 헤어를

함으로써 라스타파리아니즘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였다.²⁴⁾ 따라서 남성들은 적색, 황색, 녹색의 스트라이프 니트웨어를 입고 드레드락스 헤어와 모자템(tam)²⁵⁾을 썼다.〈그림 1〉 여성들은 길게 차려입고 아프리카풍 무늬가 프린트된 스커트와 샌들을 신었으며,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모자로 그들의 드레드락스 헤어스타일을 감쌌다.²⁶⁾



(그림 1) 원색의 티셔츠와 모자 템
Street Style p.78

2. 리가머핀과 비행라 스타일(Raggamuffins & Bhangra style)

1970년대 흑인 사회에 널리 유행되어 정신적인 믿음의 역할을 해 온 라스타파리아니즘은 1980년 10월 자메이카의 사회주의 정부 마렐(Manley) 정권이 물러나면서 쇠퇴하였다. '누더기를 입은 젊은 남자'²⁷⁾라는 의미의 라가머핀은 랩²⁸⁾과 레게를 혼합한 음악 스타일로 라스타파리안과 상반되며 종종 향락주의 젊은이를 의미하곤 하였다.²⁹⁾ 1980년대 들어 자메이카의 신세대인 '시가(seaga)'의 어린이³⁰⁾는 라스타파리안 문화를 배척하며 새로운 춤과 음악, 의복 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라가(ragga)로 알려진 그들의 음악은 신시사이저(synthesized) 사운드를 사용하여 섹스, 폭력과 개인주의를 찬양한 것이다.³¹⁾

따라서 그들의 복식 역시 비도덕적이며 도발적인 육체의 노출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자극적인 시

스루(see-through)나 슬래쉬(slash)된 걸옷, 그리고 짧은 배티 라이더(batty rider)³²⁾ 슈트를 입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보글(boggle)같은 춤을 추었다.〈그림 2〉 즉, 라스타파리안의 겸손함과 자연스러움 대신 개인적인 성공을 사랑하며, 천박한 표현으로 부를 과시한 것이 라가머핀 스타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아프리케(applique)와 사치스러운 자수가 있는 스톤워시 데님(stone washed denim)을 패치워크(patchwork)한 슈트를 입음으로써 부와 성공을 나타냈다.



(그림 2) 짧은 배티 라이더와 보글 춤
Street Style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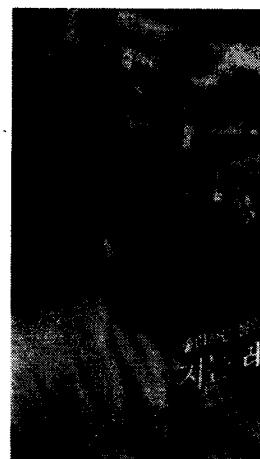
라가의 영향 중 흥미로운 예는 아시아의 비행라(bhangra)이다. 비행라란 아시아 고대 민속 음악으로, 복식에 있어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아시아 전통 복식들과 혼인으로부터 유래된 라가머핀의 편안한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영국 남부 요크셔(Yorkshire) 출신의 음악가 아파치 인디언(Apache Indian)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³³⁾

3. 힙합 레게스타일(Hip-hop Reggae Style)

1990년대 남아공의 인종차별 폐지의 상징으로 첫 혁인 대통령 만델라가 취임되자 음악이나 패션 등의 대중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³⁴⁾ 1994년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 가운데 하나로 레게음악이 댄스 음악으로 급부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복식의 유행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힙합 레게스타일이 널리 확산되었다. 최근 레게 음악의 히트곡은 오리지널 레게음악과 많은 차이가 있는 댄스풍의 레게 음악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레게 리듬에 랩 또는 힙합³⁵⁾을 개체한 것으로 일명 힙합 레게라 한다.

힙합 레게음악은 1990년대 청소년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으로³⁶⁾ 우리나라에도 큰 인기를 얻어 힙합 레게패션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성향은 길거리 청소년들의 패션과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모습 그리고 광고와 힙합 레게 가수들의 음반 재킷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김건모의 음악에 맞춘 그의 힙합 레게스타일은 대중가수의 패션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하는 청소년 세대들의 성향으로 그들의 패션에 큰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LG 패션의 〈티피코시〉가 1993년 12월 가수 김건모를 고용하여 레게음악과 현란한 색상이 이끄는 힘을 연관지어 '레게 열정을 입는다'라는 카피와 함께 원색을 적절히 배합한 상품을 내놓아 레게패션을 유행시키는데 박차를 가했다.〈그림 3〉



(그림 3) 김건모 티피코시 광고
ELLE 1994.10 p.96

힙합 레게스타일은 아프리카 원주민의 민속복에서 영감을 얻은 모티브나 장신구를 이용한 원시적인 이미지와 함께 과감한 노출, 적색, 황색, 녹색의 사용, 에스닉 컬러, 검은 피부, 두건, 드레드락스 해어가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특히 힙합 레게스타일

<표 1> 레게패션의 계보

시기	스타일	특징	상징성
60년대 중반~70년대	라스타파리안	-적색, 황색, 녹색을 이용 -천연소재 -손뜨개 니트 -아프리카풍 스커트, 샌들 -드레드락스 헤어, 모자템 -카므로라즈	-흑인의 자존심, 주체성 표현 -흑인 저항의식 -아프리카 복귀 -자연으로 조화
80년대 초	라가머핀 & 비행라	-시스루, 슬래쉬 -짧은 배터 라이더 -아프리케, 패치워크	-향락, 섹스 지향 -개인주의 찬양 -부, 권력의 과시 -소재의 다양화
90년대 중·후반	힙합 레게	-원색과 검정색의 조화 -모자 달린 셔츠, 트랙슈트 -헐렁한 배기 팬츠, 큰 티셔츠 -아프리카 민속문양 -드레드락스 헤어 -두건, 모자 텁 -스포츠웨어 스타일	-자유분방한 욕구 분출 -소수 민족의 관심 고조 -구속과 억압에 반항 -개성 추구

이 거리의 흑인들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화인 만큼 격렬한 춤동작을 고려한 트레이닝 웨어(training wear), 모자가 달린 큰 셔츠, 풍성한 점퍼, 트랙 슈트(track suit)를 착용하며, 원색이나 검정 위주의 헐렁한 셔츠, 배기 팬츠, 농구화, 배낭, 금색 체인 목걸이가 특징이다.

IV. 1990년대 나타난 레게패션의 특징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나타난 레게패션들의 각 스타일들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나타난 레게패션의 특징과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1. 아프로 레게스타일(Afro Reggae Style)

아프로 레게스타일은 1960년대 말 흑인들의 뿌리인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저항이 고조되면서 나타난 아프로 패션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로 레게스타일에 흑인의 저항을 담은 아프로의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다.

레게패션에 나타난 아프로 스타일은 아프리카를 이미지로 한 색상과 패턴, 소재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다. 색채의 경우 레게의 대표적인 색상인 적색, 황색, 녹색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흙과 땅을 상징하는 갈색, 황갈색 등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나타내는 강렬한 색채가 특징이다. <그림 4>은 콤플리스(Complice)의 작품으로 노예의 피와 아프리카의 부, 푸른 초원을 상징하는 적색, 황색, 녹색을 사용한 스트라이프 원피스로 하이패션에도 드레드락스 헤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 Complice Fashion Show 1994 S/S p.336

패턴은 아프로 패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를 중심으로 마름모, 지그재그와 같은 기하학적 패턴, 또는 동물, 식물, 조류, 사람을 모티프로 하여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공예적 느낌의 나이트가 자주 사용되는데,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런 느낌이 자연으로의 복귀와 친화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아프로 레게스타일은 <그림 5>와 같이 화려한 색상과 아프리카의 기하학적 패턴, 드레드락스 헤어와 기하학적 패턴의 셔츠와 수공예적인 느낌의 모자 등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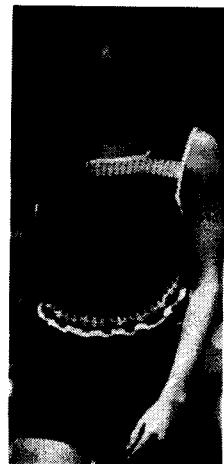


(그림 5) 그룹 푸지스
ELLE 1996.9. p.190

2. 페미닌 레게스타일(Feminine Reggae Style)

페미닌 레게스타일은 기존의 라가머핀이 갖는 성적인 표현과 폭력을 상징하는 과감한 노출, 원색과 다양한 소재의 사용 등에 소재의 고급화를 피하여 하이패션으로 변화하여 시스루, 바디컨셔스(body conscious) 외에도 속옷을 겉옷화 시키는 방법 등으로 섹시한 여성미를 레게패션에 도입시켰다.<그림 6>

특히, 1980년대에 출현한 라가머핀에서 볼 수 있었던 바디슈트, 슬래쉬, 아프리케, 단추, 비즈, 스핑글과 같은 부자재, 패치워크 등을 사용하여 표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일반 타운웨어로서 여성스럽고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6) Alberto Ferretti
Fashion Show 1996 S/S p.347

스트리트 패션의 경우 이 스타일은 다른 레게스타일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신체의 과시와 화려한 색상, 그리고 다양한 패턴끼리의 조화를 특징으로 볼 수 있다.<그림 7> 이와 같이 페미닌 레게 스타일은 기존의 레게패션 중 여성스러움과 섹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스트리트 패션보다는 하이패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7) 화려한 배색의 팬츠
ELLE 1993.3 p.191

3. 스포티 레게스타일(Sporty Reggae Style)

레게의 댄스화에 따른 힙합과 레게의 결합으로

례개음악이 청소년에게 더욱 인기를 얻게 되면서 무엇보다 춤추기 편안한 스타일과 활동적인 이미지의 원색을 사용한 스포티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포티 스타일은 TPO에 관계없이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는 바지 통이 넓은 배기 팬츠, 패딩 점퍼, 니트 스웨터, 탱크 탑 같은 스포츠 웨어 아이템을 주로 이용하여 유니セックス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우선 스포티 레게스타일은 색상에 있어서 적색, 황색, 녹색과 같은 원색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나타난다.〈그림 8〉 또한 스트리스 패션의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로, 〈그림 9-10〉과 같이 원색의 점퍼, 통 넓은 배기 팬츠, 드레드락스 헤어에 모자 텁 등으로 최근 젊은이들의 의상을 대변해 주고 있다. 스포티 레게스타일은 하이패션보다는 스트리트 패션에서



(그림 8) Chnistian Dior
Fashion Show 1990-91A/W p.118

<표 2> 1990년대에 나타난 레게패션의 특징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레게패션이 스포티 스타일에 해당 된다는 점이 주목이 된다.



(그림 9) Ssamzie Sport 광고
섬유저널 1997.8 p.71



(그림 10) 밥 말리 티셔츠
ELLE 1994.5 p.220

스타일	이미지	디자인 특징
아프로레게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의 이미지 -자연으로의 복귀와 친화 추구 -풍요로운 자연 환경 -흑인의 저항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대지를 상징하는 색상 -적색, 황색, 녹색 -스트라이프, 기하학적 패턴, 아프리카 패턴 -수공예적 느낌의 니트 -드레드락스 헤어, 모자 텁
페미닌레게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감한 노출로 섹시한 이미지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고급화 -엘레강스한 이미지로 부 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루 소재와 바디컨셔스 -신체가 들어난 바디슈트 -슬래쉬, 아프리케, 비즈, 패치워크 등 다양한 소재 -재킷, 팬츠로 여성미 부각

스포티 레게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표출 -활동적이고 편안한 스타일 추구 -스포츠웨어 일상화 -토탈룩의 코디네이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색, 황색, 녹색 -통 넓은 배기팬츠, 패딩점퍼, 후드 티셔츠 스포츠 웨어 아이템 -TPO를 무시한 유니섹스 -드레드락스 헤어, 모자 텁
---------------	---	---

V. 디자인 기획

1. 디자인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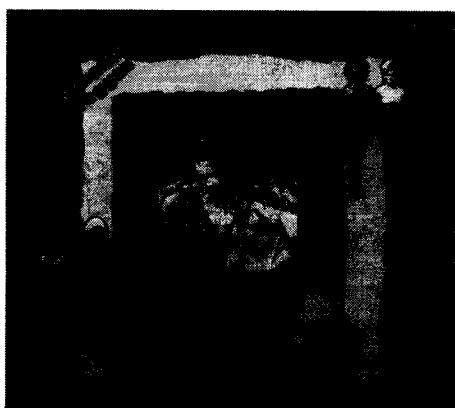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스포티한 이미지에 국한 되었던 기존의 레게패션으로부터 탈피하여 현재 패션 트랜드로 부각되는 로맨틱 분위기를 도입하여 디자인을 기획, 제시하였다.

가. 디자인 컨셉 <그림11>

Romantic Reggae

장식성 위주의 보헤미안적 패션이 상징하는 자유로움을 레게에 도입한다. 레게가 상징하는 적색, 황색, 녹색과 아프리카의 대지의 색을 바탕으로 틀에 얹매이지 않는 보헤미안 스타일을 디자인에 도입하여 로맨틱한 레게로 표현한다.

- 단순한 디자인과 실루엣을 중시한 디자인
-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특성을 살림.
- 실용적인 단품과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한 토탈 코디네이션 룩의 제안
- 색채는 99-00 A/W의 패션 트랜드를 고려한 감각적인 컬러 사용



(그림 11) 이미지 맵 Romantic reggae

나. 타깃

Age Main: 21세-23세

Sub: 19세-28세

2. 디자인

1) 아프로 레게스타일 <그림 12>

테마: natural pure

아이템: 맥시 스커트, 니트 티셔츠, 솔

소재: 카키, 브라운, 오렌지, 베이지, 옐로그린



(그림 12) 일러스트레이션 Natural Pure

2) 폐미닌 레게스타일 <그림 13>

테마: Sexy Modern

아이템: 바디슈트, 코트, 스트라이프의 양말

소재: 가죽, 니트, 모피, 면

색채: 레드 브라운, 옐로 계열을 띤 오렌지, 베이지, 브라운의 조화

3) 스포티 레게스타일 <그림 14>

테마: Vivid Life

아이템: 헐렁한 큰 티셔츠, 패딩 점퍼, 넉넉한 배기 팬츠, 모자 텁

소재: 코듀로이, 두텁게 코팅된 인공적 느낌의 소재, 펄트 조직의 면

색채: 운동감과 활력을 주는 적색, 황색, 녹색의 조화



(그림 13) 일러스트레이션 Sexy Modern



(그림 14) 일러스트레이션 Vivid Life

VI.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레게패션의 미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레게패션의 출현 배경과 레게패션의 계보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1990년 이후 나타난 레게스타일과 그로부터 이미지를 얻은 디자인을 기획, 제시한 것이다.

레게패션은 1960년대에 반유행 경향의 대두, 아프

로 패션의 영향, 레게음악의 출현과 대중화를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 라가머핀과 비행라(Raggamuffins & Bhangrs), 힙합 레게(Hip-hop Reggae) 스타일로 변천해 왔다. 첫째 라스타파리안은 196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나타난 스타일로 에티오피아 국기 색을 기본으로 한 적색, 황색, 녹색에 천연 소재를 사용해 자연의 조화를 강조했다. 둘째 라가머핀과 비행라는 1980년대의 소비 문화를 배경으로 폭력적이고 개인주의를 찬양, 향락과 섹스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짧은 배터 라이더와 혁신적인 직물을 사용했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출현한 힙합 레게 스타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출현하였고 원색과 검정의 조화, 모자 달린 티셔츠, 배기 팬츠, 모자 텁, 트랙슈트가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나타난 레게스타일은 아프로 레게(Afro Reggae)스타일, 페미닌 레게(Feminin Reggae)스타일, 스포티 레게(Sporty Reggae)스타일로 구분된다. 첫째 아프로 레게스타일은 아프리카 복귀에 대한 관심으로 아프리카의 이미지 중 원색과 흙과 대지의 색상, 아프리카의 패턴의 응용, 천연소재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둘째 페미닌 레게스타일은 고급소재의 사용, 바디컨셔스와 비치는 소재, 몸에 피트된 실루엣, 과다한 노출 스타일로 표현된다. 스포티 레게스타일은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한 유니섹스의 이미지가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스타일 중 아프로 레게와 페미닌 레게는 하이패션에 많이 나타났고 스포티 레게는 스트리트 패션에 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999-2000년 A/W의 경향에 맞추어 디자인 기획을 하였다. 디자인은 20대 초반의 짧은이들을 타깃으로 하였으며, 디자인 컨셉은 Romantic Reggae로 기존의 레게패션이 원색의 사용에 스포티한 면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새 천년의 기대와 과거에 대한 향수로 보헤미안적인 로맨틱한 레게패션을 제시하였다. 테마는 Natural Pure, Sexy Modern, Vivid Life로 하였으며 각각의 소재, 색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및 미주

- 김정연(1998), 한국 청소년 하위 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 연구-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과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김지은(1997), 아프로 패션에 관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김창남(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한울.
- 사이먼, 프린스(1995), 사운드의 힘: 록음악의 사회학. 권영성, 김공수(역) 서울: 한나래.
- 세광음악 출판사(1993), 패플러 음악 용어 대사전.
- 엄소희(1995),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제26호.
- 이영재, 구인숙(1997), 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제20권 제3호.
- 임진모(1993), 팝 리얼리즘, 팝아티스트. 서울: 대륙.
- 임진모(1996), 록,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서울: 창공사.
- 장미선, 조규화(1996),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 제20권 제2호.
- 정은숙(1996), 의류 업계 광고 전략과 가수들의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제29호.
- 조규화(1997),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주은희(1998), Hip-Hop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Brake, Mike(1985), Comparative Youth Culture, Londern: Routledge& Kegan Paul Ltd.
- _____,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 and Youth Subculture, Londern: Routledge & Kegan Paul Ltd.
- Fred, Davis(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nt Mccracken(1988), Culture and Consump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atricia A, Cunningham and Susan Voso Lab(1991), Dress and Popular Culture,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 Polhemus, Ted(ed)(1992),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 Susan B, Kaiser(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Takamura, Zeshu(1997), Root of Street Style, Graphic-sha Pulish.
- 음악동아, 1994. 12.
- 패션투데이, 1994. 6.
- ELLE 199-94

- 섬유저널, 1997-99
- Fashion Show, 1990S/S-1999A/W
- 뉴스메이크, 1994, 8
- www. musicmart. co.kr
- www. basby. com
- www. yahoo. com. reggae. resfarian. dreadlok.
- www. strictlyroot. com.

- 1)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제26호 (1996).
- 2) 주은희, Hip-Hop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3) 본 논문에서 말하는 레게패션은 레게음악과 결부된 패션 스타일의 총칭으로 1960년대의 자메이카를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 4) Patricia A. Cunningham and Susan Voso Lab, Dress and Popular Culture,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1991), p.13.
- 5) Ibid, p.274.
- 6) 이영재, 구인숙, 흑인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제3호, (1997), pp.63-64.
- 7) Hebdige, D.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Methuen & Co. Ltd., (1979), p.35.
- 8) Ash J, E. Wilson, Chic Thills: Rebel Without Cause,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92), p.89
- 9) 김지은, 아프로 패션에 관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p.124.
- 10) Ibid., p.111.
- 11) 주은희, Hip-Hop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p.8.
- 12) 멘토(Mento) : 음악장르는 영국의 포크송에 자메이카의 뱃소리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멘토는 40, 50년대 들어 스카라는 빠른 템포의 음악으로 발전했는데 두번째와 네번째 박자에 액센트를 주는 비트리듬의 원초적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팝 리얼리즘, 팝 아티스트, p.123.)
- 13) 스카(Ska) : 스카 사운드가 생성된 것은 자메이카 연주인들이 아미애미의 위즈(WIZZ) 방송과 뉴 올리언즈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청취했던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음악을 접하면서 이루어졌다. 스카라는 단어는 기타를 타는 소리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팝 리얼리즘, 팝 아티스트, p.123.)
- 14) 「뉴스메이커」 1994. 8. 25, p.75. (김정연, 한국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p.46에서 재인용.)
- 15) 주은희, op. cit., p.22.

- 16) 임진모, 록,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서울:창공사 (1996), pp.124-125.
- 17) Bob Marley & Wailers :밥말리의 밴드 이름. 웨일러스(wailers)는 '외치는 사람들'을 의미함. (팝리얼리즘, 팝아티스트, p.103)
- 18) 세광출판사, 패플러 음악 용어 대사전 (1993), p.475.
- 19) Polhemus, Ted,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1992), p.78.
- 20) 흑인들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나라.
- 21) Ibid., p.78.
- 22) Zeshu Takamur, a Roots of Street Style, Graphic-sha Publish (1997), p.140
- 23) 드레드락스(dread-rocks): 길고 진흙으로 굳어진 엉긴 로프 같은 머리 형태를 말한다. 드레드락스는 오랜 예언에 의해 구약 성서에 있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을 고수한 것이다. 원래는 아프리카 전사의 전통적인 머리 형태로 이미지는 사자의 갈기 머리이다.
- 24) 김정연, op.cit., p.47.
- 25) 텨(tam): 적색, 황색, 녹색을 사용한 라스타파리안의 니트모자. 드레드락스를 보호하기위해 착용했다.
- 26) 이영재, op.cit., p.70.
- 27) Ibid., p.110.
- 28) 랩(rap): 랩의 유래는 오페라의 래시타티브와 비트닉 시인이 재즈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읊조리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흑인들의 하급문화에서 생겨난 말장난이며 운율이 있는 슬랭을 숨 쉴 겨를도 없이 속사포처럼 지껄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랩 그룹에는 카운트 룰 아웃(Count Cool out) 여성 트리오 시퀀스 (Sequence) 등이 있다.(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p.63)
- 29) Zeshu Takamura, op.cit., p.160.
- 30) 80년대 자메이카 신세대의 호칭.
- 31) Polhemus, Ted, op.cit., p.110.
- 32) 배터라이더: 짧은 팬츠와 브레이저 형태의 상의로 구성된 상하 한 벌의 몸에 꼭 맞는 의복.
- 33) Ibid., p.111.
- 34) 주은희, op.cit., p.33.
- 35) 힙합(hip-hop): 랩을 들려 쌈 라이프 스타일로서 옷의 착장이라든지 특별한 신조어가 섞인 어법, 춤 등을 일컫는다. 힙합의 기원은 과거 미국 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읊조리는 노래에서 찾거나 단어 그대로 해석해 엉덩이(hip)를 들썩거리는(hop) 것을 의미한다. 음악적 장르로서의 힙합은 1970년대 초 DJ들에 의해 탄생되었다.(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p.63)
- 36) 엄소희, op.cit., p.109.